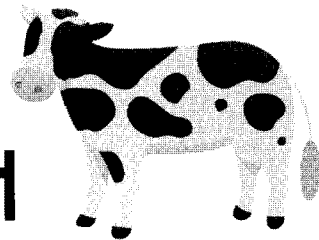




늘목목장 대표 남군희, 남상용 부자(우측), 늘목목장 입구

깨끗한 목장, 늘목목장을 찾아서



목장명 : 늘목목장 / 목장주 : 남군희 대표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64-1

〈목장규모〉

- 총두수 : 70두 · 착유우 : 40두(건유우 7두)
- 육성우 : 38두 · 유지방 : 4.04 · 유단백 : 3.12
- 체세포 : 6.7만(1등급) · 새균수 : 5천(1A등급)
- 일일 평균 산유량 : 850kg(두당 평균 32.5ℓ)
- 납유차 : 서울우유협동조합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늘목목장

목장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남군희 대표와 부인 이광휘씨가 직접 심은 꽃이 만발해 주위 들꽃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농장 입구의 방역기를 넘어서면 메리골드와 능수화가 있고, 축사로 올라가는 언덕 돌담 사이에는 꽃양귀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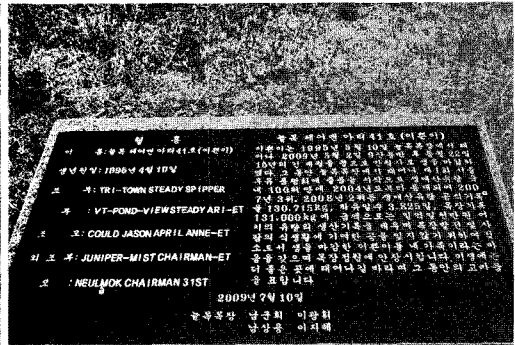
축사 아래 잔디밭



돌담 사이 피운 꽃



늘목41호(예쁜이) 무덤



늘목41호(예쁜이) 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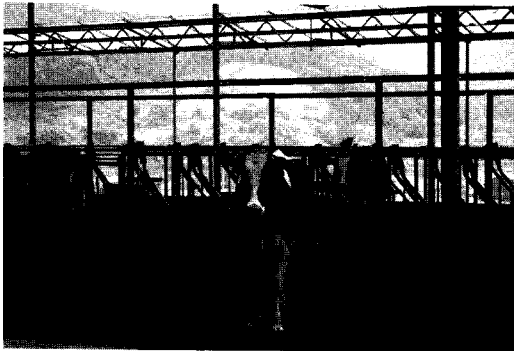
되어있다. 2008년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을 획득한 늘목목장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축사 아래엔 남대표가 직접 찾아다니며 고른 반듯한 돌들로 담을 쌓아놨고 그 아래 예쁜 꽃과 바위가 푸른 잔디를 빙 두르고 있다. 잔디밭 맨 안쪽으로 들어가면 고인돌처럼 생긴 무덤과 비석이 있다. 2008년까지 10회 출산하며 서울우유 품평회 전국 3위에 빛나는 “예쁜이(늘목 41호)”의 무덤이다. 비석 내용은 남대표가 직접 쓴 것으로 예쁜이를 향한 고마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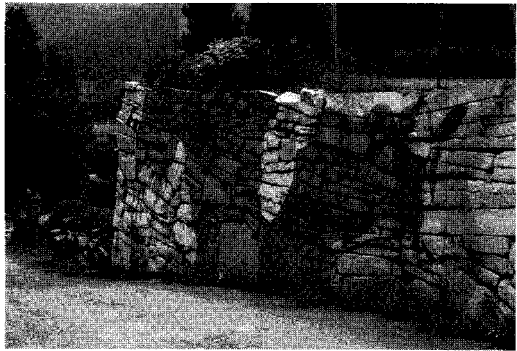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늘목목장은 1987년에 젖소 사육을 시작해 1989년 첫 납유를 했고, 1992년 현재 위치한 축사에 자리를 잡았다. 총 사육두수는 70마리이고 이 중 착유우는 40마리이며 일평균 산유량은 32.5ℓ이다.

“내가 만들고 내가 가꾸는 나의 목장”

1981년, 남대표는 군대 전역 후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 계획으로 한우 목장을 시작했지만 소 값 파동으로 인해 목장을 접어야 했다. 그러나 남대표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87년도에 다시 젖소 5마리를 구입하였고 89년, 서울우유에 납유를



남대표가 직접 제작한 축사



젖소벽화

시작했다. 92년에 지금의 축사로 이전했고 97년, 목장 내부의 지반 공사를 실시했다. 이때부터 남대표 특유의 목장 경영철학과 세심한 관리가 목장 곳곳에 스며들며 늘목목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남대표는 인천제철에 H빔을 주문 제작하고 고물상에서 직접 기타 철재를 구입하며 1,000평이 넘는 수란우 전용 축사를 손수 제작했다. 자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용접작업으로 인해 시력이 크게 저하되기도 했다고 한다. “원래는 용접을 못했다. 그러나 내 목장은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계속 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용접 전문가도 와서 배워갈 정도의 기술을 갖게 되었다”는 남대표의 말을 통해 축사를 스스로 만들고 가꾸고자 하는 열정이 지금의 늘목목장을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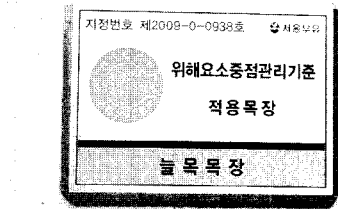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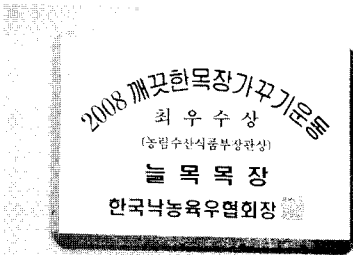
늘목목장은 벽화가 있는 목장으로 알려졌다. 오르막 길에서 지반을 고르기 위해 석축조성을 했고 그 벽면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 목장일을 돕고 있는 아들 남상용 씨의 친구가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 작업을 했다고 한다. 15일 간의 작업으로 이뤄졌는데 그 미술학도는 아무생각 없이 돌벽만 쳐다보다 그냥 간 날들이 절반이상이었다고 한다. 뭘 그려야 할지 쉽게 구상이 되지 않아서 였다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늘목목장의 명물, 젖소벽화다.

목장관리는 작은 것 하나부터

늘목목장은 정부가 한국형 보증씨 수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초해군 농가 육성에 첫 번째로 지정받은 목장이다. 국내 기관까지 합치면 서울우유 생명과학연구소, 축산과학원 다음 3번째이지만, 제1호 일반 청정육종농가로 형질이 우수한 종모



목장입구에 세워진 청정육종농가 간판



착유실 입구에 걸린 우수목장 수상 입간판과 HACCP인증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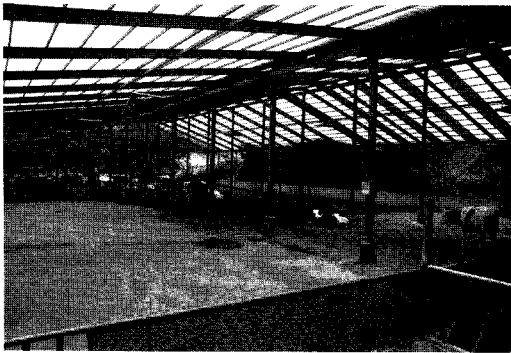
목장구축, 관리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남대표

우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선정 당시에 사육하는 모든 소가 우결핵, 부르셀라, 뉴코시스, 요네병, 구제역, 네오스포라 등과 관련한 질병 하나 없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목장을 깨끗하게만 관리한다면 대부분의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며 질병 예방관리 측면에도 꾸준한 청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청정검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늘목목장은 도입국 암소 상위 0.3% 이내의 고능력 수정란과 이식비용 등을 지원받아 계획교배를 실시하고 있는데(현재 20두 관리 중) 암송아지가 나오면 목장에서 보유하고 수소 송아지가 나오면 후대검정 종모우로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로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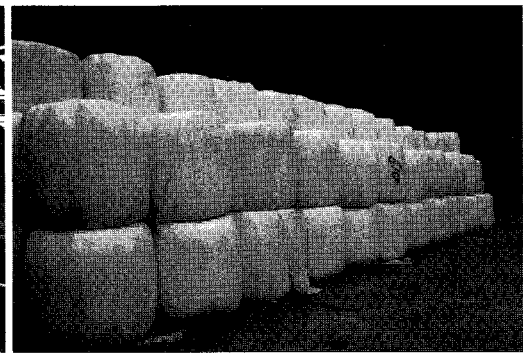
남대표는 목장경영에서도 남다른 신념을 품고 있다. “내가 목표한 것에 달성 확률이 40%만 되면 무조건 시도한다. 100% 다 맞을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주위에서 간혹 자리가 좋아서 목장이 잘 된다고 하는데 모르는 소리다. 마냥 좋아 보이는 이 자리는 급경사 비탈을 깎고 손수 쓸만한 돌을 찾아 쌓아가며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했다. 열악한 상황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이윤이 남을 때마다 차근차근 투자하며 땀 흘린 것이 지금의 늘목목장을 만들어 왔다고 한다. 시설구축과 관리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것을 감안한다면, 늘목목장과 같은 경영이념은 모든 농가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비용을 아끼면서 젖소들의 기분도 좋게 하는 1석2조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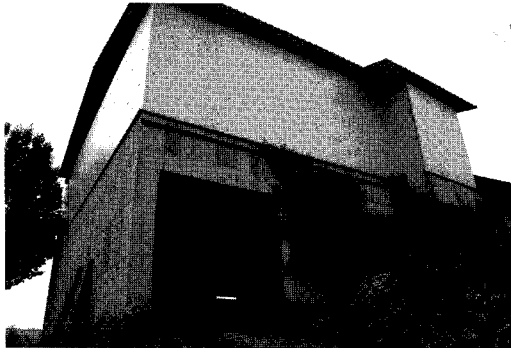
남대표는 우사내 톱밥을 1년에 2회에 걸쳐 전체적으로 교체해왔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축사가 한 번에 급격히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했다. 그 결과 현재는 두 달에 한 번, 구역을 정해 부분적으로 교체한다. 전체적으로 교체할 경우 톱밥 차량이 16대가 필요했는데, 지금과 같은 교체방식으로는 8대면 충분하다



축사운동장 전경



목장내 보관중인 끈포시일리지



퇴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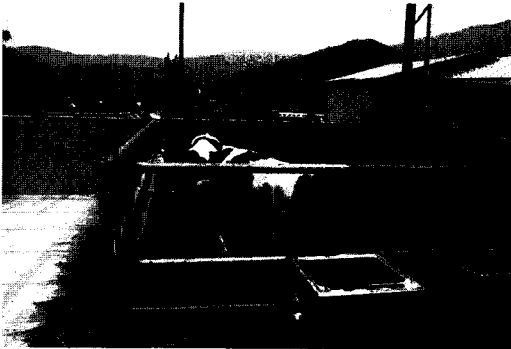
부숙중인 퇴비·퇴비사 안임에도 악취가 거의 나지 않는다

고 한다. 이처럼 비용절감은 물론, 축사가 골고루 깨끗해지자 “젖소들이 더 좋아한다”며 관리 효율성까지 높인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축사로 올라가는 길 한 칸에는 200평 정도 되는 퇴비사가 있다. 어두운 퇴비사 내부에는 악취를 거의 느낄 수 없는 퇴비들이 부숙을 거치며 양질의 비료가 되어 가고 있다. 어둡지만 불쾌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고추균·유산균 등이 함유된 발효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겹겹이 쌓이는 퇴비 내에서는 열로 인해 세균이 죽고 수분도 같이 증발해 자연스럽게 건조된다. 올해부터는 이것들을 운동장 톱밥 위에 혼합하기로 했다고 한다. 요즘 일본의 축산농가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남 대표는 톱밥 구매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질병예방과 사양관리, “먼저 소가 깨끗해야지”

“소는 사람과 똑같다. 지저분하면 병에 걸린다. 그리고 사실 체세포가 낮은 것, 유지율이 높은 것은 청결유지 외엔 따로 설명할 것이 없다.”며 질병관리로 소와 축사의 깔끔한 위생 유지를 강조한다. 또한 목장과 젖소 관리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깨끗이 관리한다면 자연스럽게 젖소도 건강을 유지하며 좋은 사양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체세포 6.7만의 유질유지 비결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기보단 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평상시 축사 운동장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물론, 착유과정에서도 기본에 충실할 뿐이다. 착유 전 마른 수건으로 젖소 유방에 묻은 불순물을 닦아낸 후 전침지를 실시하고 소독 종이(wipe-out)로 유두를 닦아주는 것이 전부다. 이처럼 남대표는 질병예방과 사양관리를 위해서는 청결함을 유지하는 선에서 자기에게 맞는 간단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향후 계획

남대표는 “초A급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형질의 젖소만 생산하는 최고의 목장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했다. 또한 목장 운영 중에 유치원생을 비롯한 어린 아이들이 하루 견학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는 계획도 있었다. 현재는 육종농가로 선정되었다는 책임감으로 목장 내 교육이나 단체 방문은 자제하고 있지만 향후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최첨단 방역 시설이 갖춰진다면 목장 내 “잘 생긴 소”와 함께 농장 견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소소한 일상 속 세심한 부분부터 실천하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를 토대로 국내 젖소능력의 향상을 이끄는 늘목목장을 기대한다. ⊕

(취재 : 김성인)